

cryoglobulinemia(이하 EMC라略稱)라고 보고하였고, 이들 EMC에서 HBV 표식자를 측정하여서 HBV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며, 1977년 Levo 등은 이러한 경우가 74%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演者 등은 HBV 표식자 양성인 환자에서 monoclonal IgM(k) component를 同伴한 mixed cryoglobulinemia 및 膜增殖性絲絨體腎炎의 병리소견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2세 여자로서 단백뇨를 主訴로 來院하였으며 임상적으로 慢性肝疾患을 보이다가 腹水 및 深한 cryoglobulinemia로 발견하였는데 이 환자의 검사소견은 Hb 8 g%, WBC 5,100, Platelet 25만, Albuminuria (H), RBC 40~50/HPF in urine, SGOT/SGPT 186/125, Prot./Alb. 6.2/3.9, BUN/Cr 39.6/1.4, CCr 35.3 ml/min, Cryoimmunoglobulin(+), Cryocrit 24, VDRL(-), RA titer 1:5120, 血清補體值 C<sub>3</sub>/C<sub>4</sub>/CH<sub>50</sub> 42/4.7/76 미만, HBsAg/eAg/sAb/cAb+/-/-/+, cryoprecipitate의 HBsAg(+) RA factor(+), 면역단백질 IgG/A/M 640/93/860, 혈청의 단백 및 면역단백 전기영동에서 M-peak를 보인 monoclonal type의 IgM, Kappa polyclonal 및 mixed IgM-IgG component 帶의 증가를 보였으며, 腎組織病理檢査狀 mesangial matrix의 확장 및 세포수의 증식, 基底膜의 double contour, mesangium 및 subendothelium에 electron dense deposit 등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 환자는 HBV에 의한 만성 간질 환 및 막증식성 신사구체신염에 의한 임상적 소견을 보인 monoclonal IgM, kappa type 및 polyclonal mixed cryoglobulinemia로 판명되었다.

— 15 —

### 미세병변 신증후군에서 백혈구 유주억제 반응과 림프구 아세포 형성에 대한 혈청 억제인자의 영향

가톨릭의대 내과

안병민·김호연·방병기·민병석

본 연구는 미세병변신증후군 minimal change nephrotic syndrome에서 세포성 면역기능의 이상, 특히 지

연성 과민반응 및 림프구 아세포 형성능과 혈청 억제 인자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자 18예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였다. PPD를 항원으로 in vivo 피내반응(Mantoux test)과 in vitro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leukocyte migration inhibition test)를 활동기 및 비활동기에 조사하였고, PHA-P에 대한 림프구의 반응과 혈청 억제인자가 림프구 아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1. 신증후군 환자의 Mantoux 검사는 활동기 15예 중 12예(80%)에서, 비활동기 15예 중 4예(26.7%)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2.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는 추적 조사하였던 11예 중 8예에서 활동기에 양성 반응이던 것이 비활동기에 양성 반응으로 전환되었다.

3. 신증후군 환자의 단핵구 세포를 PHA-P로 자극 후 그 상층액 내의 백혈구 유주억제 인자(leukocyte inhibitory factor)의 반응을 정상인 다형핵 백혈구를 지시세포로 하여 간접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를 하였던 바 활동기에서는 양성 반응(평균 migration index 1.01)을, 비활동기에는 양성 반응(평균 migration index 0.73)을 보였다.

4. 신증후군 활동기 및 비활동기 환자에서 분리한 단핵구의 PHA-P 자극 <sup>3</sup>H-thymidine 섭취율(incorporation)은 활동기에 감소되었다가 비활동기에 증가되어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각각 stimulation index 4.01±0.82, 23.29±7.58, p<0.01).

5. 신증후군 활동기 환자의 단핵구 세포를 정상인 혈청으로 전처리한 후 PHA-P 자극 <sup>3</sup>H-thymidine 섭취율은 자기 혈청 전처리 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각각 stimulation index 4.21±2.31, 43.42±4.92 p<0.01).

6. 정상인의 단핵구 세포의 PHA-P 자극 <sup>3</sup>H-thymidine 섭취율은 자기혈청 전처리 후 유의하게 낮았고(각각 stimulation index 30.82±8.15, 4.35±3.18, p<0.01) 비활동기 환자혈청으로 전처리 후에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stimulation index 23.59±7.69). 이러한 활동기 환자 혈청 억제효과는 56°C에서 30분 처리해도 남아 있었다.

이상의 성적으로 신증후군의 활동기에는 면역 조절 기구 세포의 이상으로 어떤 혈청 억제 인자가 일시적으로 출현하여 in vitro에서 mitogen에 의한 림프구 아세포 형성과 백혈구 유주억제 인자의 형성을 억제시키며 in vivo에서 지연성 과민반응을 억제 시킨다고 생각된다.